

문헌의 통맥대기는 범신론의 제창이 아니다. 그리고 종자처럼 생태학전 전망을 표명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통맥대기(神)이 있다거나, 통맥대기처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설득하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다. 통맥대기라는 말에는 아무런 심오한 뜻이 없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통맥대기이다. 통맥대기는 더럽고 지저분한, 다들 가까이하기 싫어하는 물건이다. "무엇이 부처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문헌은 "부처란 바로 쓰레기같은 존재"라고 질러버린 것이다. 역사상 어떤 종교도 창시자에 대해 이토록 적나라한 모욕을 던진 적은 없었다. 드디어 불교는 여기까지 왔다. 선은 지금 넘어서는 안될 선을 위태롭게 밟고 있는 것이다.

선은 다들 알고 있듯이 전래의 불교전통을 무시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면서 스스로를 정립해 나갔다. 그들은 불상을 경건하게 예배하지도 않고, 경전을 열심히 독송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자신의 본질을 통찰하고 파지하는 일에 매달렸다. 고의적인 기행과 과격한 교육방식이 같은 지향의 결과이다. 또 이론과 추론을 싫어하고 형이상학적 사색을 경시하는 풍조 역시 가타(gatha)의 시대 이래 불교가 파지해온 정신 가운데 하나이다. 선을 대표하는

한형조 무문관 탐방

문헌의 통맥대기 ①



그림 · 이준석

을 맞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나를 경배하려 하지 말고, 법(法)을 등불로 삼아 생사의 고리에서 벗어나라." 소승은 이 가르침을 충실하게 지켰다. 대승은 아라한(阿羅漢)의 이상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승을 함께 태울 수 있는 너른 수레(大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거기에는 일반적 믿음과는 달리 대승에 대한 타협과 아부의 혐의가 있다. 아쇼카왕이 발처주던 국가적 지원이 끊기면서 승단은 대승의 재정적 후원과 유대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승가는 그 반대급부로 대승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내세를 이끌어줄 불보살들의 구원의 약속을 주었다. 대승에서 중관과 유식, 화엄과 천태의 심오한 철학만을 보는 사람에게는 내 말이 지나친다고 여겨질지 모르겠다.

가령 대승경전에서 이런 의혹을 가져본 사람은 없는가. 중관의 철학은 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는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방앗간을 하면서 부자로 살던 어떤 거사님의 일화도 그 중 하나다.

수행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불심이 매우 깊었던 그는 절에 시주도 많이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도 많이 지었다. 건강하던 거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혼을 열라대왕 앞에 데려다 놓더라는 것이다. 생전의 행적을 엄경대라는 거울을 통해 조사하던 열라대왕은 거사님에

구품(九品)

계 네 손을 한번 보고 싶으니 손바닥을 펴보라는 것이었다. 거사가 손을 펴자 열라대왕은 "네가 생전에 부처님을 믿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만 손에 너 자신을 위해서 굴린 열 주자국이 비치지 않는구나. 네 다시 너의 공덕으로 보아 인간세상에 보내 줄터이니 너를 위해 염주를 굴리고 오너라" 하였다. 깨어보니 가족들은 거사님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터였는데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신기해 했다. 그 뒤로 거사님은 아예 가정일과 세상일은 모두 그만두고 방안에 앉아 늘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였다. 그러길 4년이 지나서 하루는 가족들을 불러 앉혀놓고 자신은 이제 이승의 수명이 다하여 몸을 버리게 되는데 죽자마자 극락정토에 갈 것이니 슬퍼하

法數로 배우는 불교

<38>



◇김영민 작 '성불로 가는 길'

어떤 저승사자나 열라대왕과 같은 심판자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모두 자신의 의식 가운데 있는 선·악의 작용인 것이다.

극락정토는 착한 일 많이하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은 사람이 아미타불을 많이 염했을 때 태어나는 곳이다. 극락정토는 한량없는 세월전에

번뇌·고통 사라진 아미타 정토 염불·공덕 따라 9등급 나뉘어

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마음을 닦으라고 유언 하였다. 매우 평온하고 깨끗한 체로 거사님이 운명하였는데 신기하게도 방안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일생 동안의 삶과 죽을 그리고 죽을 순간에서 만났다는 지옥사자나 열라대왕 나아가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은 다음 가게된 극락정토는 모두 거사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승의 일과 저승의 일이 마치 별개의 것인양 보고 자신 밖에

법정이라는 수행자가 모든 중생의 생사고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마흔여덟가지의 숭고한 원을 발하고 아미타(阿彌陀)라는 부처가 되어 세운 나라다. 인간세계의 서쪽 무량아세계를 지나 존재한다는 이곳엔 더러움과 고통과 악함은 조금도 없고 오로지 깨끗하고 즐겁고 착한 곳으로 죽은 다음 보배와 상서로움으로 가득차 있다. 업과 번뇌로써 만들어진 육계·색계·무색계의 중생계와는 전혀 다른 극락정토는 오로지 그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원과 함께 아미타불을 정성껏 염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극락정토에 나고자하는 중생의 원과 중생을 극락정토에 가게 하려는 아미타불의 원이 일치되어 왕생이 보장된다. 극락정토는 원을 발하고 염불을 한 중생의 차원에 따라 상생상품·상생중품·상생하품·중생상품·중생중품·중생하품·하생상품·하생중품·하생하품의 구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율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선업을 쌓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아미타불을 염했는가에 따라 상생상품이나 하생하품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극락세계가 꼭 죽은 후에 태어나는 곳일 것 같지만 이도 그렇지만은 않다. <관무량수경>에서는 누구라도 신심을 발하여 대승경전을 찬탄하고 염불하며 극락정토를 관하는 수행을 닦으면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고 한다.

혜능스님의 자심미타(자기 마음에서 미타가 나타남)와 원효대사의 유심정토(마음에서 정토가 열림)는 꼭 아미타불과 극락정토가 죽은 후의 자국이 아닌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일러준다. 끝없는 빛(無量光)과 끝없는 수명(無量壽)을 지녔다는 아미타불, 그리고 일체 번뇌와 고통이 사라져 그 기쁨이 극에 달한다는 극락정토 그것은 과연 현재의 마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될 과제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法' 등불삼아 생사 벗어나라

타력신앙 등장 '진리의 등불' 풍전등화

캐츠 프레이진 돈오(頓悟)마저 나는 불교의 정통적 사유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깨달음은 예고가 사라진 지리에 절대자가 현현하는 영원의 사건이라는 교설은 보리수 아래 우유족 한 그릇으로 열린 고타마 붓다의 깨달음의 핵심이고, 그것은 소승과 대승을 거쳐 밀교에 까지 이어진 불교정신의 정수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자면 돈오는 수피즘이나 사막의 수도사들, 그리고 장자나 심자에 공자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 신비주의의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을 가르는 것은 그곳에 이르는 방법적 차이이고, 그 통찰을 구현하는 문화적 실천적 양식의 차이이다.

나는 선의 특징이 레디칼리즘에 있다고 생각한다. 불교의 가르침, 돈오의 진실을 일상에서 경험적으로 구현함에 있어서의 그 과격함과 과단성, 극단성과 철저성에 있다. 문헌이 창시자에게 던진 모독과 타매(唾罵)의 패륜은 그같은 레디칼리즘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오기까지 불교는 오랜 준비와 과정을 거쳤다. 그 대강을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산사에 들어설 때 모종의 위압감과 경건한 분위기에 압도된다. 벽화에 그려진 천상의 불보살들, 그리고 치열한 정신의 극에서 우주를 삼켜버리고 사자후를 토하는 조사님들

에게 대한 어떤 규정도 희망도 거부하는 절대 부정의 정신으로 잠철되어 있다. 지상과 천상의 모든 권위와 가치가 이 다이아몬드의 칼 앞에서 잘려나간다. 그런데 그 한편에는 이 칼에 베이지는 커녕 이 칼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는 불사(不死)의 신적 존재들이 있다. 화장(華藏)세계의 불보살들은 중관(中觀)의 지고한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요, 만일 어설픈게 비난하거나 질시하는 자가 있다면 무간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것은 기묘한 병치이다. 대승운동은 일찍이 모순된 이 두 날개, 즉 철학적 깊이와 종교적 열망이 훌륭하게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했다. 실제(實際)는 입체라서 가끔 논리적 모순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거는 그러나 불안정한 것이었다. 정치적 변란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대승들은 점점 더 불보살들에 의한 가피와 외호를 바라게 되었다. 복잡한 형이상학과 심리학을 통한 자력의 교설은 저만큼 밀려나기 시작했다. 타력에 대한 논리적 의존은 이윽고 동아시아에 정토종이라는 강력한 종파를 탄생시켰다. 그 무렵 진리의 등불은 패배주의와 말세 의식의 거친 바람 앞에서 위태롭게 감박이고 있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와 수학

31

진리

김용운

약 2천3백년전 유클레이데스는 그 이전에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기하학적 지식을 집대성해서 기하학의 체계를 수립했다. 그는 몇 개의 절대적 진리로 여겨지는 공리로부터 출발해서 빈틈없는 논리 체계를 세웠다. 그 논리 체계가 어떻게 완 벽했는지 그후 2천년간 절대 진리로써 서구의 지식 세계에 압도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중 하나가 평행선에 관한 공리다.

(가) 일정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의 꼭지점의 평행선이 존재한다(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꼭 180°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그 진리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가설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그리하여 그 내용을

(나) 일정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에 두 개 이상의 평행선을 그을 수 있다(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보다 작다)로 바꾸어 보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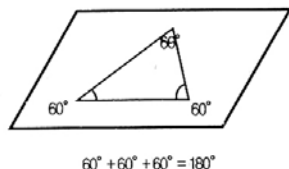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수학적 진리 절대아닌 가설 불과 불교 "자기 서있는 곳 모두 진리"

었다. 두 개 이상의 평행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한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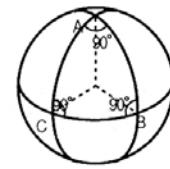
(다) 일정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하나도 없다(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보다 크다)로 바꾸어 생각했다. 그랬더니 이들 (가) (나) (다) 3개의 평행선에 관한 명제는 서로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유클레이데스가 수립한 것과는 다름없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기하학의 체계로 알려진 것이다. 이 사실은 그간 진리란 '꼭 하나

만 존재한다'고 여겨져 온 서구의 '진리관'에 엄청난 충격이었다. 실제로 공간적으로도 이런 명제가 성립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유클레이데스 기하학을 절대 진리로 여겼던 시절에는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안 것이다. 그후 '수학적 진리는 절대적이 아니라 한낱 가설에 불과하다'(포앙카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의 그림은 각각 공간이 (가) (나) (다)의 경우를 보이고 있다. (가)가 상식적으로 유한의 공간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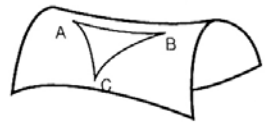


60° + 60° + 60° = 180°

<가>



<나>



<다>

고 있다. 다시말해 현대수학의 개념도 어떤 명제라도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수행자를 위한 여시아문의 책

여시아문

은 '돌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견뎌왔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마음 읽히는 책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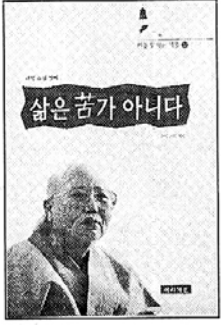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원효 스님을 비롯한 33분 / 린스님 / 범어 / 모음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기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깨달이다.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마음 읽히는 책들 ②



삶은 꿈가 아니다

대행 / 스님 / 범어집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빛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古)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해원 엮음
신국판 288쪽 / 값 6,000원

수행자를 위한 경전 공부 ①



금강경 대강좌

적연 이재열 법사가 풀이한 금강경 대강좌

선(禪)적인 해석이나 뜻풀이에 그쳐 모든 불자들이 온전히 제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금강경. 그 금강경이 이제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금강 반야의 세계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 우리 앞에 다가선다.

이재열 지음
신국판 300쪽 / 값 8,000원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독특한 해석으로 명쾌한 수행방법론을 제시!